

# 교원 10명 중 8명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반대”

**교총, 유·초·중·고 대학 교원 설문**  
38% “여건 마련 후 도입 재결정”  
고교 교원 “잠정유예” 의견 다수  
27.6% ‘2022 교육과정 개정 찬성’

전국 교원의 85%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는 27.6%만 찬성했고, 대입 정시 확대에는 63.6%가 찬성했다. 교원 10명 중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원은 3명뿐이었다.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3.5%로 해마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교사 대부분 회의적

먼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답변에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은 ‘여



한국교총이 지난해 11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결정’(38.0%)에 가장 많이 답했고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1.4%)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15.9%) 순으로 부정 의견을 나타냈다. ‘원안대로 2025년 전면 도입 추진’은 14.8%에 불과했다.

지난 3일 인수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교원들은 2025년 전면 도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교 교원들은 ‘여건 마련 후 시

기 재결정’을 가장 많이 꼽은 다른 학교 급과 달리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를 1순위로 답했다. 또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23.3%) 응답도 유일하게 20%대로 높게 나타나 부정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 도입 불가’(40.9%)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 인 교원 총원 부족’을 들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찬성’(27.6%)보다 ‘반대’(31.5%) 의견이 높았다. 특히 고교 교원들의 반대 응답률이 42.2%로 단연 높았다.

교총은 “이번 교육과정 전면 개정이 얼마나 현장과 소통이나 공감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고교학점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민주 시민교육에 매몰된 전면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반대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불필요(37.1%)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만을 감안한 성급한 개정(32.0%)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 ◆교사 10명 중 6명 ‘정시 확대 찬성’... ‘입시 공정성 확보’

대입 전형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63.6%가 찬성했다. 반대는 22.7%에 그쳤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교원의 찬성률이 68.7%로 가장 높고 고교 교원이 54.3% 찬성률로 가장 낮았다. 정시 확대 찬성 이유는 ‘입시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용’(60.8%)을 1순위로 꼽았다.

고등교육 지원, 육성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고교 인재의 지역대학 선발, 지역 핵심인력으로 취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51.2%)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고위험, 고가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지방국립대 역할 정립’(21.8%)을 꼽았다. 대학 재정 확충, 자율성 확대는 각각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 ◆“새 정부는 현장 중시 정책 추진해야”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사기는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했나에 대해 78.7%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78.0%보다 더 낮아진 수치다. 2009년 응답비율 55.3%보다는 23%p 이상 부정 답변이 높아진 결과다.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4.6%)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업무’(18.8%)를 주요하게 들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순천향대, 강소기업 대표 객원교수 위촉

**이안하이텍 등 강소기업 10개社 산학협력 통해 기업형 인재양성**

순천향대학교 창의라이프대학은 10일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이안하이텍, 예산농산 등 10개 강소기업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산학협력 객원교수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스마트팩토리공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교육활동 등 직·간접적인 산학협력을 펼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체에서 ▲안치현 이안하이텍 대표 ▲배성필 예산농산 전무 ▲장형석 동호테크 대표 ▲한홍구 삼아인터내셔널 경영본부장 ▲김명석 엠아이팜 경영지원실장 ▲배세철 정코스 메틱 대표 ▲이운형 비엔케이 대표 ▲오



2022학년도 창의라이프대학 산학협력 객원교수 위촉식 (앞줄 왼쪽부터) 김명석 에이팜 실장, 안치현 이안하이텍 대표, 장형석 동호테크 대표, 한홍구 삼아인터내셔널 경영본부장, 이운형 비엔케이 대표, 유성용 창의라이프대학장, 배성필 예산농산 전무, 배세철 정코스메틱 대표, 남용우 엔캠 전무, 차세진 휴넷플러스 이사, 현기진 한엘 대표, (뒷줄 왼쪽부터) 심철우 교수, 이자현 교수, 김관도 교수, 임상호 교수, 김현수 창의라이프대학 교학부장이 위촉패를 안고 파이팅을 외치며 산학협력 객원교수 출발을 알렸다. /순천향대

정강 엔캠 대표 ▲현기진 한엘 대표 ▲차혁진 휴넷플러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향후, 산학협동 객원교수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비롯해 ▲대학과의 공동 연구 ▲학생 현장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체계 구축 ▲계약학과 참여수요 발굴에 따른 홍보지원 ▲첨단 산학연구 협력분야에서의 교육참여와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창의라이프대학은 오는 2학기 교양과목으로 운영되는 ‘앙뜨레프레니십’ 강의를 매주 팀티칭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객원교수는 이 강의에 특별강사로 활동하며 기업체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인하대, ‘공학교육혁신 연구정보센터’ 선정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육성**

인하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 ‘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 운영기관으로 연속 선정돼 앞으로 6년간 정부지원금 42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11일 밝혔다.

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는 ‘창의 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에 선정된 13개 주관대학 등 전국 74개 대학들과 함께 글로벌 공학교육 역량 강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은 전국에서 인하대가 유일하다.

인하대는 2018년부터 국내 공학분야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교육학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

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공학교육 연구, 교수역량 강화교육, 온라인 산학협력 플랫폼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센터는 앞으로 공학교육이카데미 운영, 공학교육 혁신성과 공유 및 확산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공과대학 간 컨소시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온라인 산학협력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교류 및 성과확산 활동을 바탕으로 협력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창의·융합형 공학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한신대-호텔인터불고원주, 상호협력 맞손

**학생 인턴십·현장실습 운영 문화권 특화프로그램 등 협력**

한신대학교는 9일 호텔인터불고원주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한신대학교 및 유관 기관 교직원 복지 협력 ▲학생 인턴십(교육연수) 및 현

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협력 ▲호텔인터불고 원주 연계 복원 문화권 특화 프로그램 공동 개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벤처 협력 ▲ESG 실천 및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 ▲양 기관의 공동 시설 사용 및 학술연구 협력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브랜드 홍보마케팅 및 기타 협력을 진행한다. (주)디자인파크개발은 국내 최초로 야

외 운동기구 및 테마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급한 조경·체육 시설 전문 기업이다. ▲종합 운동기구 브랜드 ‘웰핏’ ▲어린이 놀이시설 ‘유플레이’ ▲물놀이 시설 ‘원더풀’ ▲캠핑브랜드 ‘캠포레스트’ ▲휴게시설 ‘보모로’ 등 5개 브랜드에 다양한 제품을 생산 및 설치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정식에서 김요섭 디자인파크개발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현진 기자

20년사 발자취 돌아보고 부대행사도

원광디지털대학교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오는 12일 오후 2시 원광대 60주년 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함께 이룬 20년! 함께 가는 WonDerFul!’이라는 슬로건 아래 원광디지털대의 20년사 발자취를 돌아본다. 또한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소누프리메디주한인도문화원장, 김종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 보산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원광디지털대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장기근속 교직원들을 위한 특

별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외 전주관소리합창단의 판소리 공연 등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12일 열리는 원광디지털대 개교 2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엄수해 진행되며 20년사 영상은 추후 원광디지털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원광디지털대는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김덕수 사물놀이 대공연을 무료로 개최한다.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티켓 신청은 원광디지털대 학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